

## R-25. 임플란트 환자의 유형 및 분포에 대한 연구

홍성재\*, 문상권, 백정원, 김창성, 최성호, 이근우, 조규성  
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, 치주조직재생연구소,  
BK21 의과학 사업단,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

1960년대 초반 Brånemark에 의해 처음으로 골 유착 개념에 의한 임플란트가 소개된 지 약 40년이 지났다. 임플란트 치료는 기존의 고정성 보철물 및 가철성의치와 달리 잔존하는 골의 유지 및 저작기능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치료로 자리를 잡아, 치과의사 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커져있다.

1992년 2월부터 2001년 10월 사이에 Y대학 부속병원 치주과에서 수술을 받은 640명의 환자에게 이식된 1814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환자유형 및 임플란트 분포 조사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1. 환자의 유형에서 남녀 차이는 없으며, 40-50대에서 환자수로는 49%, 임플란트 수는 56%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.
2. 하악 구치부에 59%, 상악 구치부에 21%, 상악 전치부에 14%, 하악 전치부에 6%순으로 임플란트가 시술되었다.
3. 단일치와 bridge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된 부분 무치악의 경우가 98%이었고, 완전 무치악의 수복은 2%이었다.
4. 치아 상실의 원인은 치주염, 충치, 외상, 선천적 결손의 순으로 나타나며, 남자의 경우에서 여자보다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. 또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충치보다는 치주염이 주된 치아 상실의 원인이었다.
5. 골질은 상악의 경우 type III(52%), II(28%), IV(20%), I(0%)순이었고, 하악의 경우는 type II(52%), III(37%), IV(7%), I(4%) 순의 분포를 보인다.
6. 골양은 상악의 경우 type C(49%), B(34%), D(14%), A(3%), E(0%)순이었고, 하악의 경우는 type B(52%), C(39%), D(6%), A(3%), E(0%)순의 분포를 보인다.
7. 임플란트는 10-14 mm 길이의 임플란트가 80%, 폭경은 표준직경 임플란트가 79%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.

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임플란트 환자의 유형 및 분포, 수술부위의 골 상태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,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성공률 및 생존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